

짐이 되어버린 삶, 시적인 태도로 치유하기

[서평] 박찬국(2017),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21세기북스, 264쪽.

설 민*

1. 인간 육성론이자 근원적 윤리학으로서 철학

생철학, 역사철학, 해석학의 주요 인물로서 하이데거 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철학자로 알려진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는 “모든 참된 철학의 결실과 목표는 가장 넓게 이해된 교육학, 즉 인간 육성론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¹⁾ 실제로 서양 철학 전통의 주요 계보를 잇는 철학자들은 딜타이가 말한 바와 같이 참된 인간에 대한 가르침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데아의 세계로 인도하는 플라톤의 파이데이아부터 초인을 가르치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은 공히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인간답게 길러낼 수 있는가를 가르친다.

하이데거 또한 딜타이의 견해에 동조할 것이다. 다만 딜타이와 달리 하이데거는 교육학이 아니라 윤리학을 언급한다. 하이데거는 「휴머니즘

*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대학 강의전담교수

1) W. Dilthey, *Pädagogik. Geschichte und Grundlinien des Systems. Gesammelte Schriften*. Band 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6 (1934), p. 7.

서간」(1946)에서 왜 윤리학적 저서를 쓰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자신의 사상이 곧 윤리학, 근원적 윤리학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때의 윤리학은 역시 가장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즉, 삶의 태도,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자세, 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윤리학 말이다.

박찬국 교수의 저서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는 표지에 쓰인 출판사의 홍보 문구 그대로 “하이데거 명강의”로서 철학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높임말을 이용한 강의식의 친근한 어투로 하이데거 전후기 사상을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주제의식 없이 하이데거 사상 가운데 전달하기에 용이한 부분만을 골라서 짜깁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목에 나타난 바대로 박찬국 교수는 인간의 삶을 화두로 삼아서 하이데거 사상의 핵심을 간명하게 전달한다. 평자가 보기에 그 핵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가장 넓게 이해된 윤리학적 문제의식 하에서 인간 육성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박찬국 교수가 포착한 하이데거식 인간 육성의 교훈은 짐이 되어버린 인간의 삶을 시적인 태도로 치유하라는 것이다.

2. 하이데거 사상을 쉽게 소개한다는 지난한 과제

박찬국 교수는 프롤로그의 말미에서 “하이데거의 사상을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쉽게 소개하려고”(19쪽) 한다고 밝힌다. 잘 알려진 바대로 하이데거 사상은 난해하다. 사실 어느 서양 철학자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 어려움의 성격은 각기 다르다. 하이데거 철학의 어려움은 여럿이 있겠으나 아마도 다음의 두 가지가 특히 결정적일 것이다. 첫째, 일찍이 아도르노가 힐난한 바대로 표현이 지나치게 전문용어

로 점철되어 있고, 둘째, 그 용어들로 전달하려는 사태가 이미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이데거 스스로 고안해 낸 전문용어들을 따라잡기가 우선 힘들거니와, 어렵게 그것들을 머리로 이해한 듯해도 결국 그것들이 지시하려는 사태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기가 십상이다. 물론 하이데거는 두 어려움 각각에 대한 정당한 변명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하이데거가 자신의 철학을 통해 밝혀내고자 했던 “대상”이 서양 형이상학 전통에서 포착하고자 했던 대상과 그 성격이 판이하기 때문에 그로서는 기존의 철학 용어를 활용하여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둘째, 그가 관심을 기울였던 그 “대상”, 그가 말하는 바대로 존재자가 아닌 존재가, 근본적으로 비대상적이어서 우리의 포착 시도에 대하여 부단히 스스로를 감추는 본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이데거를 다루는 많은 주해서들 가운데 이러한 두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성공한 경우는 흔치 않다. 하이데거의 전문용어 대신 좀 더 익숙한 용어들로 하이데거를 소개한 대가로 그가 드러내고자 하였던 사태가 왜곡, 은폐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하이데거의 저술들 못지않게 전문용어로 점철된 탓에 그의 사상을 좀 더 수월하게 풀어서 전달한다는 취지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건대 박찬국 교수의 저서는 하이데거 사상을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표현과 예시, 문학작품 등을 활용하여 쉽게 소개하면서도 그것을 왜곡하지 않고 또 깊이를 상실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일독할 가치가 있다.

근래에는 불교 사상으로 연구의 폭을 넓히고 있지만, 박찬국 교수는 본래 니체와 하이데거 사상의 전문가이다. 그는 『하이데거와 나치즘』, 『내재적 목적론』, 『니체와 하이데거』,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읽기』와 같이 주로 철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연구서를 펴냄과 동시에 『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니체, 인간에 대해서 말하다』, 『초인 수업』을 비롯하여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교양서도 꾸준히 출간해왔

다. 2014년에 출간된 『초인수업』은 니체 사상을 근간으로 한 인생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의 인생론이란 앞서 말한 인간 육성론이나 근원적 윤리학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출간된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를 박찬국 교수의 저술 목록 가운데 하이데거 사상을 근간으로 한 인생론의 결정판으로 꼽아도 무리는 아닐성싶다.

3. 고향 상실의 시대, 공허해진 삶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이 책의 제목이다. 단순히 접근해 보자. 제목을 놓고 보건대, 이 책은 짐이 되어버린 삶이라는 특정한 문제 현상을 다루고 있다. 문제가 거론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 방식은 대략 문제 규명, 원인 분석, 해법 제시로 이루어진다.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도 이러한 구도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총 열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칠게 나누어 보자하면, 첫 세 장은 문제를 규명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반면에, 이후의 논의는 대체로 해법 제시, 즉 어떻게 현재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대안적 삶으로의 이행이 가능한가를 서술하는 데 주력한다. 우선 인간 삶, 아마 더 정확히는 현대인의 삶이 겪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분석부터 따라가 보자.

오늘날의 시대는 “고향상실의 시대”(1장 제목)로 규정된다. 아늑함을 느끼며 근심이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으로서의 고향을 현대인은 상실하였다. 현대인의 대다수는 “꽃과 나무, 달과 별을 보면서 그것들의 아름다움에 맑은 마음으로 취할 수”(26쪽) 있는 자연과 동떨어진 대도시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시기와 질서 그리고 경쟁이 은밀하게 혹은 공공연하게 사람들을 지배”(26쪽)한다. 그런데 고향상

실의 문제는 단순히 자연에서 사는가, 도시에서 사는가라는 지리적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에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농부들조차도 “식물에게 인위적으로 비료를 주고 씨앗을 개량하는 등 온갖 조작을 가함으로써 인간이 원하는 식품을 가능한 한 많이 내놓도록 강요”(29쪽)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농부들 또한 대도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의지, “인간을 둘러싼 자연 전체를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변환시키고 남용하려는 광기 어린 의지”(37쪽)에 빠져 있다. 이러한 지배에의 의지는 “현대기술문명을 근저에서 지배하는 익명적 힘”(37쪽)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대인들은 흔히 스스로를 이러한 의지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들 또한 이 의지에 의해 소모당하는 객체라는 사실이다. 이는 기술문명의 지배에의 의지 하에서 인간 또한 거대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뽑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에너지원”(39쪽)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인간 자신마저도 에너지원으로 소모되도록 닦달하는 지배에의 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현대인은 고향상실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대진단의 요지이다.

2장에서는 1장의 논의를 심화하여 현대문명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우상숭배”(2장 제목)에 빠져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박찬국 교수는 하이데거의 사상에 입각하여 현대 기술을 도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아르놀트 겔렌(Arnold Gehlen)이나 하버마스과 같은 철학자들의 입장을 “순진한 생각”(48쪽)으로 치부한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기술문명의 익명적 힘인 지배에의 의지가 인간 주체에게 종속된 것이 아닌 이상 기술이 단순히 인간의 도구에 불과한 것일 수 없다. 나아가 박찬국 교수는 현대인의 기술에 대한 태도를 일종의 종교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서양 중세인들의 신에 대한 태도와 비교한다. “신만이 진리를 드러내고 신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서양의 중세인들이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과학이야말로 진리를 드러내고 과학을 응용한 기술만이 인간의 삶을 안전한 토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49쪽) 믿는다는 것

이다. 현대인의 과학지상주의(scientism)적 태도로부터 박찬국 교수는 흥미로운 결론을 끌어낸다. 즉, 과학기술이 인간이 주인이 되어 휘둘러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인류가 의존해야 할 궁극적 이상이라는 유사종교적 지위를 차지하는 한,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그것에 대한 자유로운 관계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인 파악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종의 종교적 회심이 필요”(51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회심은 “새로운 세계이해를 갖는다는 것”, “인간이 전적으로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60쪽)한다.

1장과 2장은 현대문명에 대한 시대적 진단을 통해 현대인의 삶이 처한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고찰한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왜 이토록 공허한가”(3장 제목)라는 물음에 대하여 현대 과학기술문명에서 인간의 삶은 지배에의 의지에 종속되어 스스로 에너지원으로 소모당하도록 뒤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러한 답변에 덧붙여 3장은 지배에의 의지에 종속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준다. 그것은 사물의 성스러움이다. 지배에의 의지가 인간과 모든 사물을 규정하는 곳에서 그 사물들에 깃든 성스러운 성격이 빠져 달아나 버린다는 것이다. 성스러움이란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하고 처분할 수 없고 우리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자가 갖는 성격”(66쪽)이다. 사물과의 관계가 지배와 정복이 아닌, 성스러움의 경험으로 이루어질 때 “인간은 자신의 삶을 충만한 것으로 느낄”(77쪽) 수 있다. 성스러움의 경험이 지극히 어려워진 기술문명 시대에서 인간은 삶의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상의 논의는 주로 후기 하이데거 사상에 의존한 것이지만, 박찬국 교수는 여기에 전기 하이데거의 핵심 저작인 『존재와 시간』(1927)의 논의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사람들은 성스러움의 상실에 따른 공허를 외면하기 위해 성적, 사회적 지위, 재산과 같은 세간적인 가치들을 중심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격차를 벌려 자신의 우위를 확인함으로써 스

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세간적인 가치 실현의 삶에서는 마음 밑바닥에서 여전히 염증과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잡담과 호기심”(73쪽)을 통해서 공허를 채우기 위한 새로운 긴장과 흥밋거리를 부단히 찾아 나서게 된다. 그러나 잡담과 호기심도 세간적 가치 추구하고 마찬가지로 공허의 해소가 아닌 회피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스며드는 공허감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줄 수가 없다. 세간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비교의식도 잡담과 호기심도 과학기술시대에 상실된 성스러움의 경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공허해진 삶을 치유하는 시적인 태도

인간의 삶이 공허해진 이유는 기술문명 시대를 철저히 규정하고 있는 지배에의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인간 자신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를 에너지원으로 소모하도록 뒹달함으로써 각각의 사물이 지닌 고유한 성스러움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충만한 삶을 일구기 위한 인간 육성의 방책은 무엇인가? 박찬국 교수는 공허해진 삶을 치유할 대안적 삶의 방식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4장에서부터 상세히 개진한다.

4장과 5장의 요지에 따르면, 지배에의 의지에서 벗어나 사물의 성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경이라는 근본기분이다. 우리는 항상 일정한 기분 속에 존재하고, 이러한 기분은 통상 특정한 사정들에 의해서 야기된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 사정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엄습하면서 세계 전체를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개시하는 기분”(84쪽)이 있는데, 이를 하이데거는 ‘근본기분’이라고 부른다. 경이는 그러한 근본기분 가운데 하나이다. 경이는 “세계와 사물의 진리가 드러나는 장”으로서 “단순소박한 사물들의 고유한 존재와 세계의 신비로

움”(94쪽)을 드러낸다. 박찬국 교수는 빈번히 성스러움 대신에 “신비로움”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17세기 독일의 신비주의 시인 질레지우스의 시(101쪽)라든가 일본의 하이쿠 시인 바쇼의 시(104쪽)를 인용하고 장미나 냉이꽃과 같은 평범한 자연 사물이 어떻게 경이라는 기분 속에서 신비로움을 자아내는가를 실감나게 전달한다. 박찬국 교수는 “세계와 사물을 경이라는 근본기분 속에서 경험하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일종의 종교적 회심을 촉구하는 것”(97쪽)으로 이해한다. 이때의 종교적 회심은 물론 2장에서 언급된, 과학기술문명에 대한 이상승배로부터 벗어나는 종교적 회심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의 삶이 공허해진 이유는 우리가 관계 맺는 사물들이 에너지원으로 계산되면서 그것들이 간직한 고유의 성스러움과 신비로움을 내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물들의 성스러움과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은 경이라는 근본기분이다.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경이라는 근본기분으로 젖어들 수 있는가? 박찬국 교수의 논의에 따르면, 시적인 태도에서만 경이라는 근본기분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평자가 보기에, 성스러움도 중요하고 경이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인 문제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답변은 시적인 태도의 회복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찬국 교수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공히 시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고,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2장의 말미에서도 “새로운 세계이해는 바로 시를 통해서 주어질 수”(61쪽) 있음을 피력하고, 4장과 5장의 논의는 성스러움과 경이의 기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시를 인용하며, 7장의 말미에서도 무력감, 고독감, 허무감과 같은 인간 실존을 덮치는 “부정적 감정들은 시적 감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165쪽)고 주장한다. 그러다가 8장에 이르러 드디어 시적인 언어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해명한다.

8장은 “언어란 무엇인가”를 제목으로 달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맥락 없이 언어의 본질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8장의 논의는 기술문명의

지배에의 의지를 극복할 원천으로서 시적인 언어를 소환한다. 기술문명 시대에 언어는 곧잘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수단으로서 이해된다. 그러나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소모되는 언어는 언어의 본질에서 멀리 떨어진 것일 뿐이다. 언어의 본질은 “세계와 사물의 내밀한 통일을 죽을 자로서의 인간에게 다가오도록 불러내는 것”(189쪽)이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언어가 시어이다. 시어는 “세계와 사물을 근원적으로 현현하게 하는 ‘환기력Ruf’”(193쪽)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 세계와 사물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시어가 가진 이러한 환기력 때문이다. 박찬국 교수는 세계와 사물의 내밀한 관계를 환기하는 시어의 힘을 해명하기 위해서 하이데거가 분석하였던 게오르크 트라클(Georg Trakl)의 시 「어느 겨울 저녁」 외에도 김지하의 「빗소리」를 길게 인용하고 주해한다.

시어의 힘은 사역(四域, das Geviert)으로서의 세계와 관련하여 해명된다. 현대기술문명의 지배 하에서 세계는 “계산이나 변환이 가능한 에너지의 연관체계”(175쪽)이지만, 시적인 태도에서는 사역으로서 나타난다. 사역이란 “대지, 하늘, 죽을 자들, 신적인 자들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겨울이 서로를 비추듯 조응하며 어울려 있는 상태”(170쪽)라고 해명된다. 사물은 바로 이 네 가지 요소의 어우러짐 속에서만 그 고유의 성스러움과 신비로움을 발현한다. 지배에의 의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인간은 사물을 잠재적 에너지원이나 도구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물에서 “독자적인 무게와 깊이 그리고 신비”(187쪽)는 은폐된다. 반면에 시인의 말은 사물로 하여금 대지와 하늘, 죽을 자인 인간과 신성한 불사자인 신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세계 속에서 그 고유의 존재를 발하도록 해준다.

8장을 비롯하여 시적인 언어나 사유, 태도에 관한 논의는 전반적으로 전문 시인이 쓴 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박찬국 교수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어가 특수한 언어로서 시에 한정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는 “시적인 정신으로 충만한 순수한 산문은 좁은 의미의 시 못지않게 시적

일 수”(194쪽) 있다고 말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거꾸로 좁은 의미의 시로 분류되고 출간되었지만 시적인 사유 특유의 환기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그 시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어가 되기에 부족할 것이다. 전문 시인이 쓴 시를 하이데거도, 박찬국 교수도 빈번히 인용하는 것은 그러한 시만이 시적인 사유를 나타내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시적인 사유를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스스로 시인이 아닌 대다수 사람의 입장에서는 직업 시인이 쓴 훌륭한 시를 접하는 것이 시적인 사유의 환기력과 사물의 성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장 수월한 길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이데거는 빈번히 존재가 말을 걸어온다고 표현하는데, 시적인 태도란 직업 시인이 시를 쓰는 태도가 아니라 존재가 건네는 정적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인간의 태도를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드는 지배에의 의지를 극복하고 사물의 성스러움을 경험함으로써 삶의 충일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앞서 경이라는 근본기분으로 밝혀졌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충일감이나 사물의 성스러움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시적인 태도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경이와 시적인 태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박찬국 교수에 따르면, “경이라는 기분은 모든 존재자의 고유한 존재가 열리는 존재의 소리와 인간의 말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음”(195쪽)이다. 존재의 소리와 화음을 이루는 인간의 말이 곧 시적인 언어임을 고려해 보건대, 결국 시적인 태도와 경이라는 근본기분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서로가 서로를 조건 짓는 관계로 간주된다.

5. 몇 가지 남은 논의거리

이상으로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의 논의 전반을 거칠게나마 정리하였다. 다만 모든 장을 정리하지는 않았다. 핵심 주제, 즉 현시대의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안적 삶의 제시라는 논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다 보니, 주요한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언급하지 못한 장들이 있다. 9장은 8장에서 전개된 시적인 사유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건축의 본질을 해명한다. 그에 따르면 건축의 본질은 건축물에 사역으로서의 세계를 모아들이는 방식으로 그것을 개시하는 데 있고, 이는 다시 시적인 사유에 의거한다. 10장은 약간 번외편으로도 느껴지는데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헨리 데이빗 소로(Henry David Thoreau)와 하이데거를 비교하여 논의하고 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7장 제목)를 다루는 7장은 전체 논의를 끌어가는 문제의식에서 중요한 전제의 역할을 한다. 만일 진화생물학이나 진화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생존과 종족의 번식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146쪽)면, 인간이 세간적인 가치들을 잘 충족하고 잡담과 호기심을 통해서 흥밋거리를 잘 좇을 경우 인간 삶에는 어떠한 공허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7장은 진화생물학적 인간 이해를 비판하면서 인간 실존은 무력감, 고독감, 허무감에 휩싸이는 문제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존재와 시간』을 중심으로 죽음과 불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6장은 경이와 시적인 태도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전반적인 논의 흐름에 연결하기가 간단하지 않았던 탓에 앞서 언급할 수가 없었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통상 1930년대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전기와 후기 하이데거 사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적어도 접근방식상의 차이가 있다는 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 대체로 전기 하

이데거는 인간 실존 개인의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한다면, 후기 하이데거는 시대마다 다르게 드러나는 존재의 역사성을 심분 고려한다. 박찬국 교수의 서술에서 뛰어난 점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접근방식상의 엄연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후기 문헌을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유기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전기든 후기든 하이데거 사상에서 인간 삶의 근본 문제는 삶이 짐이 되어버린 현상, 삶에 공허감이 끝없이 되찾아온다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 분석에서 전기와 후기 하이데거 사상은 차이를 보인다. 전기 하이데거에 따르면 문제의 원인은 6장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의 도피이다. 반면 후기 하이데거에 따르면 1, 2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시대가 기술문명의 지배에 의지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시대사적 특징이다. 따라서 해법의 제시에 있어서도 전기와 후기 하이데거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전기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정면으로 인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때 삶의 공허는 극복되고 충실감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이 홀로서도 성취할 수 있는 해법이다. 반면 후기 하이데거의 문제 원인 분석에 따르면, 적어도 개인으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실 특정한 집단으로서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극히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근본 문제가 현시대 전체를 규정하고 특징짓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기술문명의 지배를 받는 한, 문제의 철저한 극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하이데거가 1930년대에 정치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인간 삶의 근본 문제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실패로 끝났던 그의 나치 참여는 그로 하여금 인간 삶의 문제가 정치적 공동체의 의지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다소간 무력하고 암울한 결론에 이르게 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른바 후기의 “존재사적” 사상은 전기 사상과 달리 문제의 원인을 시대사적 특징으로 돌림으로써 개개인의 의지에 의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평자가 보기에 박찬국 교수의 후기 하이데거 해석은 개인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어렵게 만드는 후기 하이데거의 시대사적 접근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대신 시적인 태도를 인간 삶의 문제를 극복할 길로서 높이 평가한다. 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전기 하이데거의 문제 접근방식과 후기 하이데거의 접근방식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발견된다. 전기 하이데거가 죽음에 대한 불안의 개별적 인수를 통해서 문제의 극복을 주창하였다면, 박찬국 교수에 의해 해석된 후기 하이데거는 시적인 태도를 통해서 문제의 극복을 주창하는 셈이다. 이제 전기와 후기 사상은 공히 개인에 의한 문제 해결가능성을 마련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남은 물음은 이제 공허한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기와 후기에서 각각 제시된 불안의 인수와 시적인 태도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일 것이다.

박찬국 교수는 6장에서 “그러나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때 즉, 지금까지의 삶이 기만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세간적 가치들에 대한 집착과 자기중심적인 자아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불안은 이제 세계와 존재자들이 충만한 의미와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이로 전환”(135쪽)된다고 말한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는 연옥불을 통과함으로써” 인간은 사물의 성스러움과 삶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경이에 이른다고 한다. 이로부터 결국 불안의 인수는 “불안이라는 기분이 기쁨에 찬 경이라는 기분으로 전환되는 것”(137쪽)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앞서 경이라는 기분과 시적인 태도가 불가분의 관계로 확인되었으니, 결국 불안의 인수도 시적인 태도와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자가 이해하기로는 불안의 인수, 경이라는 기분, 시적인 태도를 하나이자 동일한 인간 실존 방식의 서로 달리 파악된 면모라고 말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박찬국 교수는 8장과

9장에서 시적인 태도와 관련하여 사역의 한 요소인 죽을 자들을 소개하는 곳에서도 6장에서 논의한 죽음에 대한 불안의 인수를 상기시킨다. “죽음을 죽음으로 경험”함으로써 “그동안 추구했던 세간적인 가치들을 허망한 것으로 경험”(172쪽)하는 것, “그동안 존재자들을 기술적으로 조작하고 지배하면서 자신의 생존과 안락을 꾀했던 행위가 허망한 것이었음을 자각”(212쪽)하는 것, 곧 죽음에 대한 불안의 적극적 인수가 사역이 어우러지면서 존재의 말 건넌이 시적인 언어로 빛어지는 경이라는 근본 기분의 엄습이요, 시적인 태도인 것이다.

6. 자연으로의 회귀가 아니다!

마지막 장인 10장의 논의는 하이데거를 자연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삶을 찬양한 소로와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는 삶의 공허에 대한 하이데거의 인간 육성론은 결국 자연으로 회귀하여 도시문명과 담을 쌓고 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평가가 보기에 박찬국 교수가 하이데거로부터 끌어내는 진짜 결론은 그것이 아니다. 그는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문명을 버리고 슈바르츠발트의 농가 같은 소박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이데거]는 이러한 농가에 깃들여 있는 ‘거주함’과 건축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225쪽)이라고 말한다. 요컨대 자동차,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비롯하여 우리의 일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문명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라는 것이 핵심적 가르침이 아니다. 핵심은 사물의 성스러움을 경험하게 해주는 경이라는 근본기분이 엄습해오도록 사물에 대한 지배에의 의지로부터 물러나 존재의 말 건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적인 태도를 갖추려 애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배에의 의지의 산물로서 기술문명의 결정체인 사물들에서

성스러움을 경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 기술문명의 결정체들에서 하늘과 대지, 죽을 자와 신적인 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세계가 개시되기를 바랄 수야 없지 않을까? 평자의 짐작으로는 박찬국 교수도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에필로그에서 하이데거에 가해지는 빈번한 오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한다.

“하이데거가 기술문명을 비판한다고 해서 기술문명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데거 역시 전등이나 버스, 전철 등 기술문명의 이기를 누렸으니까요. 다만 그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주가 되고 무엇이 종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는 주로 기술인이나 경영인으로 살고 있고, 시나 예술은 기껏해야 기술인이나 경영인으로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여흥거리 정도로 취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이데거는 이 위계를 뒤집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260, 261쪽)

간단히 말해 기술문명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술은 우리의 삶이 생계를 필요로 하는 한에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차지해야 한다. 어쩌면 특수한 경우에 기술은 시적인 태도를 고양하는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인의 생활환경에서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시를 접하면서 시적인 태도에 이르는 것도 얼마든지 상상해볼 수 있으니 말이다.

하이데거의 결론은 기술문명을 전면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다. 소로와 같은 자연 속에서의 삶이 삶의 공허함을 극복하는 시적인 태도를 구가하기에 더욱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현대인이 기술문명에 등을 지고 자연으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대안은 기술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되 그 어느 경우에도 삶의 중심에는 시적인 태도가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후기 하이데거의 시대사적 진단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대가 기술

문명의 지배에의 의지로 점철되어있는 한에서 기술문명을 아예 등지고 자연 속으로 회귀한다는 강경책이 아니고서는, 기술문명에 의한 무력감과 공허를 완전히 일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평가가 보기에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시적인 태도로 삶의 충일감을 얻으려는 개개인의 시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기술문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이전까지 — 우리는 현재 그런 시대를 상상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시적인 태도의 고양이라는 것이 박찬국 교수가 해석한 하이데거적 윤리학의 가르침이다. 그런 점에서 현대인에게 삶의 공허는 극복을 통해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치유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